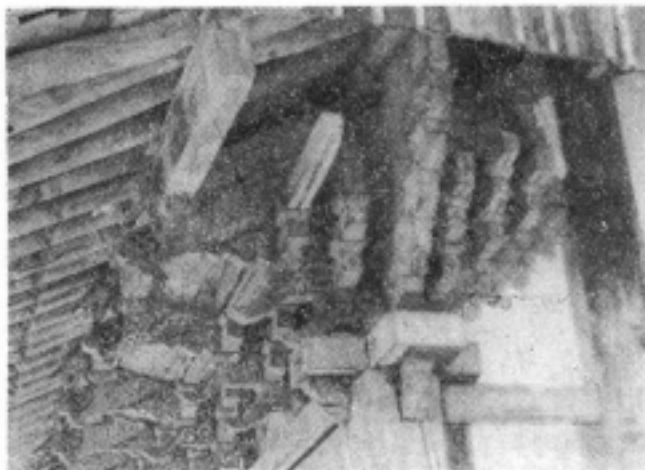


5. 완주 화엄사 극락전 조사보고서
(完州 華嚴寺 極樂殿 調查報告書)

張慶浩
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長

1978년 8월 7일 하계휴가(夏季休暇)를 마치고 사무실(事務室)에 나와보니 김홍식선생(金鴻植先生)이 보내 왔다는 원색사진(原色寫眞) 두장이 전(傳)해졌다. 사진(寫眞)을 얼른 보니 어느 고찰건물(古刹建物)의 포부분(包部分)의 측면(側面)과 정면(正面)을 찍은 것인데 낮이 설정도로 이색적(異色的)인 것을 느꼈다. 건물구조(建物構造)로 보았을 때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이 놓여 있고 평방(平枋)위에 포(包)를 짜아 올린 다포계(多包系) 건물(建物)인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처리했음이 충남(忠南) 개심사대웅전(開心寺大雄殿)을 연상케 하였다. 그러나 포(包)의 두공(頭工)은 우설(牛舌)의 끝처리라던가 첨차(첨遮)의 깎임이 장곡사(長谷寺) 하대웅전(下大雄殿)과 흡사하였다. 외부(外部)로 보아 첨차(첨遮)와 산미(山彌)의 이제공(二諸공)까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평범(平凡)한 포(包) 구조(構造)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제삼산미(第三山彌) 위에서부터는 내부(內部)에서부터 경사(傾斜)져 내려온 용(龍)의 모양을 한 큰 부재(部材)가 있었고 그 끝쪽에는 소루(小累)를 얹고 사각(四角)도리를 걸쳐 서까래를 받았음이 완전(完全)히 낮선 부분(部分)이었다.



〔圖版 1〕 金鴻植先生이 보내온 寫眞

〔圖版 1〕 김홍식선생(金鴻植先生)이 보내온 사진(寫眞)

이 경사(傾斜)진 큰 부재(部材)는 주심(柱心)도리 밑을 지나 중(中)도리밑 고주(高柱) 상단(上端)에 얹혀졌고 그위에 또 하나의 사재(斜材)가 처마도리를 교차(交叉)하여 그 뿔목은 용두(龍頭)를 조각(彫刻)하고 주심(柱心)도리 밑까지 얹혀져 있다. 이것은 바로 하양(下昂)이란 구조(構造)로서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에서는, 아직도 현존(現存)하는 건물실례(建物實例)가 많이 남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존(現存)하는 실례(實例)가 아직도 발견(發見)되지 않아 우리나라 건축사(建築史)를 연구(研究)하는 학자(學者)들이 여지껏 고심(苦心)하던 숙제(宿題)의 구조(構造)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숙제(宿題)의 구조(構造)를 우리나라에서 현실(現實)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 본인(本人)으로서 크게 흥분(興奮)함을 금(禁)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현지조사(現地調査)를 서둘러 1978년 8월 28일 같은 연구소(研究所)에 있는 문영빈씨(文永彬氏)와 함께 전라북도문화재과(全羅北道文化財課)를 거쳐 김용만(金容萬) 조경담당관(造景擔當官)과 완주군청(完州郡廳) 공보실장(公報室長)을 동반하여 현지(現地)로 출발(出發)하였다.



〔圖版 2〕 花巖寺極樂殿正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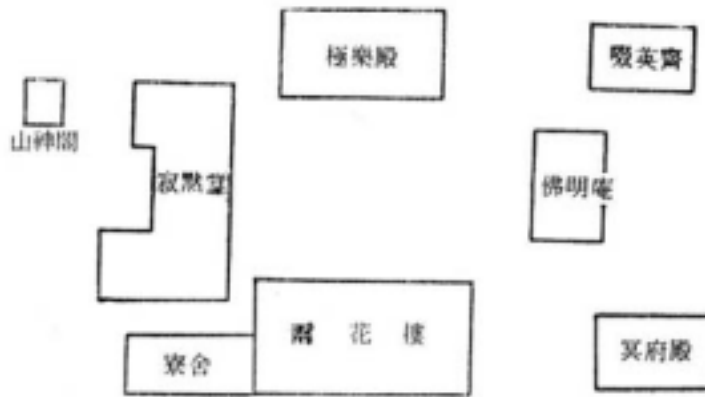
〔圖版 2〕 화엄사극락전정면(華嚴寺極樂殿正面)



〔圖版 3〕 雨花樓南側

〔圖版 3〕 우화루남측(雨花樓南側)

전주(全州)에서 북(北)쪽으로 대전(大田)을 향(向)하는 구도(舊道)로 길을 들어서 약 한 시간을 넘어 봉동(鳳東)을 거쳐 장선(長仙)을 못미쳐 동측(東側)에 가천리(佳川里)로 들어서며 전주진산(全州鎭山) 시루봉을 향(向)하여 동상골을 지나 험한 계곡(溪谷)을 따라 길도 없이 하천(河川)을 거슬러 약 3km를 걸어 올라가니 높은 지대(地帶)에 조용하고 속인(俗人)의 때를 벗어난 화엄사(華嚴寺)에 다달았다. 화엄사(華嚴寺)에 달하기전 우리들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것이 사찰(寺刹)에서 얼마 떨어져 하천(河川) 길목에 있는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석종형(石鐘形)인 부도(浮屠)와 그 옆에 조선시대(朝鮮時代) 가면(假面)과 같은 해학적(諧謔的)인 인상(人像)을 한 석(石)거북이 놓여 그 등위에는 양화석(仰花石)을 받들고 다시 이위에 석구형(石球形)의 부도신(浮屠身)을 올려놓은 이례적(異例的)인 석재(石材)들이 보인다. 여기를 지나 가파른 단(段)을 올라서면 화엄사(華嚴寺)의 우화루(雨花樓)가 높게 남향(南向)하여 서 있고 그 서편(西便)에 회랑(廻廊)과 같이 루(樓)에 붙여 세워진 작은 요사(寮舍)가 있고 이 두 건물(建物) 사이에 대문(大門)을 두어 내정(內庭)에 들어 서게 되어 대문(大門)을 들어 서면 우화루(雨花樓) 북(北)쪽에 거리를 두어 극락전(極樂殿)이 있고 서측(西側)에는 적묵당(寂默堂)이란 현관을 단 승당(僧堂)이 외부(外部)로 공자(工字) 평면을 이루고 있고 그 밖에 단간(單間)집의 산신각(山神閣)이 있으며 동측(東側)에는 불명암(佛明庵)이 놓이고 이 건물 남북(南北)에 좀 떨어져 명부전(冥府殿)과 철영재(철英齋)가 놓여있다.



〔圖版 4〕 花嚴寺 配置略圖

〔圖版 4〕 화엄사(華嚴寺) 배치약도(配置略圖)

사찰(寺刹) 주위에는 산중(山中)이라 평평한 곳이 별로 보이지 않고 다만 석종형(石鐘形) 부도(浮屠)가 있는 극락전(極樂殿) 서북측(西北側)에 약간 평지(平地)가 있어 건물지(建物址)의 가능성(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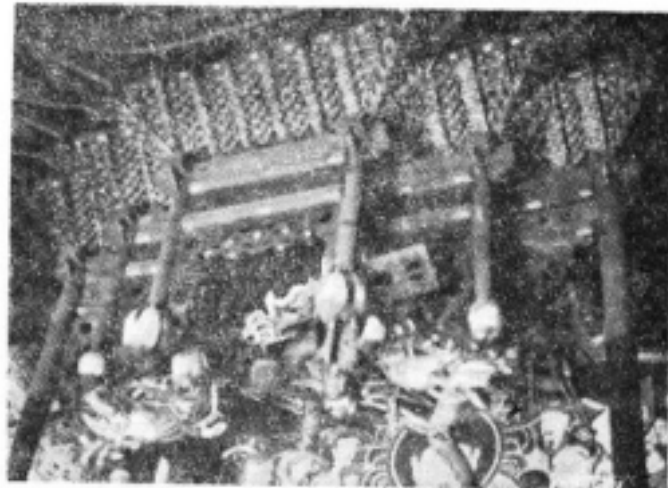
사찰(寺刹)에 도착(到着)하자마자 우리는 제일 먼저 극락전(極樂殿)에 관심(關心)을 갖고 이 건물(建物)을 둘러보고 나서 오후(午後) 2시(時)가 넘어 절에서 점심을 먹고 극락전(極樂殿)을 본격적(本格的)으로 조사(調査)하기 시작했다.

극락전(極樂殿)은 내정(內廷) 마당에서 75cm 높이의 근래(近來)에 쌓은 듯한 잡석(雜石) 기단(基壇)위에 자연석초석(自然石礎石)을 덩빙주초(柱礎) 모양 수평(水平)에서 약간씩 차이(差異)가 있게 놓고 이 위에 직경(直徑) 약 2척(尺)되는 기둥을 민흘림으로 올려 놓았는데 평면(平面)으로 보아 정면삼간(正面三間) 측면삼간(側面三間) 내부(內部)는 내진주(內陣柱)없이 통간(通間) 대량(大樑)을 걸쳐 소박하고 작은 평면(平面)을 이루고 있다. 평면(平面)을 재어보니 정면(正面)은 주하부(柱下部)가 협간(夾間) 312cm 중앙간(中央間) 369cm로 고려(高麗) 중기(中期)부터 사용(使用)되던 영조척(營造尺) (30.785cm ~ 31.0272cm)으로 환산(換算)하면 10척(尺)+12척(尺)+10척(尺)=32척(尺)이 되고 측면(側面)은 주하부(柱下部)에서는 158cm+308cm+158cm가 되어 이 영조척(營造尺)으로 환산(換算)하면 5.1척(尺)+10.0척(尺)+5.1척(尺)=20.2척(尺)이 되는데 주상부(柱上部)에서는 5척(尺)+10척(尺)+5척(尺)=20척(尺)이 된다. 물론 그동안에 기둥의 변위(變位)도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정면(正面) 총장(總長)을 32척(尺)으로 잡고 측면(側面) 총장(總長)을 간단히 20척(尺)으로 잡아 정면장(正面長) 대(對) 측면장(側面長)의 비례(比例)를 보면 32:20=1.6:1로 소위(所謂) 황금분할(黃金分割)인 1.618:1에 근사(近似)한 아름다운 평면(平面)을 갖고 있다. 기둥 상부(上部)에는 약간의 오금을 두어 정면(正面) 측면(側面) 다같이 협간(夾間)이 2~5cm쯤 안으로 숙여 있다. 또 기둥의 높이는 평균 10척(尺) 정도인데 동측(東側) 우주(隅柱)만이 약 10cm가 길며 그 대신 주초석(柱礎石)은 동측우주(東側隅柱)로부터 5cm~8cm씩 높이 놓여 결국 서측(西側) 우주초석(隅柱礎石)은 동측(東側)것 보다

도 약 18cm 정도가 높아졌고 우주(隅柱)의 귀솟음은 서측(西側)이 13cm 동측(東側)이 3cm로 한쪽으로 기운 형상이 되어 있는데 육안(肉眼)으로는 판단(判斷)하여 느낄 수 없음이 이상(異常)하다.

건물(建物)의 정면(正面)에는 기둥 옆에 주(柱)선과 창방(昌枋)밑에 상인방(上引枋)을 연귀 맞춤으로 하여 여기에 문을 달았는데 문(門)은 빗살문(門)으로 중앙간(中央間)에는 4짝 분합(分合)으로 협간(夾間)에는 3짝문(門)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목재(木材)의 상태로 보아 후대에 새로 짜아 단 것 같다. 측면(側面)에는 동서(東西) 양측(兩側) 다 앞쪽 협간(夾間)에 세(細) 살의 출입문(出入門)을 1짝씩 달고 나머지는 벽체(壁體)로 되어 있어 보통 사찰(寺刹)의 불전(佛殿)과 같은 형식을 취(取)하고 있다. 후면(後面)에는 서협간(西夾間) 및 중앙간(中央間)에 다같이 벽(벽) 중앙부(中央部)에 문(門)선을 세워 문짝을 달았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원래 판문(板門)이 있었는지는 확실(確實)히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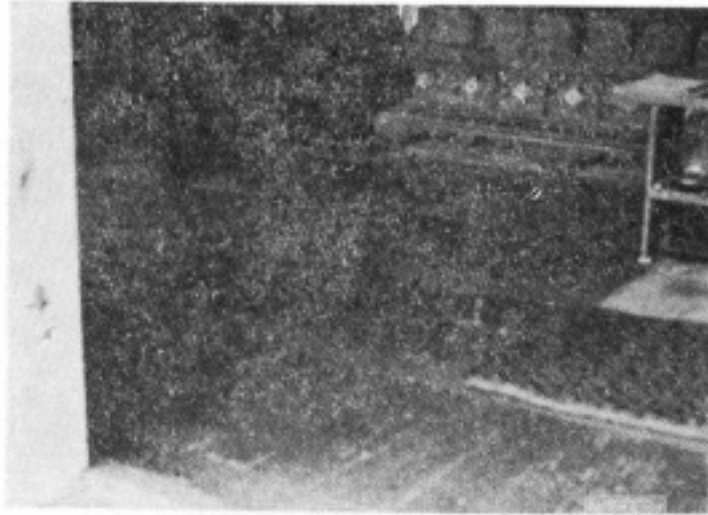


【圖版 5】 닻집

[圖版 5] 닻집

건물(建物) 내부(內部)에는 중앙간(中央間) 후측(後側)에 소박한 불단(佛壇)을 놓고 극락전(極樂殿)이란 건물명칭(建物名稱)과는 맞지 않게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을 봉안(奉安)하고 그 위에는 3개(個)의 전각(轉角)을 가진 닻집을 짜아 올려 그 안에는 비룡(飛龍)을 조각(彫刻)하여 달아 놓았다. 바닥은 대들보 방향(方向)의 장(長)귀틀을 걸고 이와 직각을 이루어 단(短)귀틀을 걸고 우물 마루를 짜았는데 서북측(西北側) 후면의 1간(間)은 1단(段) 높혀 짜았음이 특이하다. 외부(外部)에서 보아 마루밑은 통풍(通風)이 되게 고막이 벽에 통풍구(通風口)를 뚫었다. 내외부(內外部)의 단청(丹青)은 금(鎊)모루 단청(丹青)으로 채색(彩色)되어 그 문양(文樣)도 아름답고 대들보 중앙(中央)에는 용(龍)을 그리고 우물반자에는 학(鶴)과 연화(蓮花) 또 불상(佛像) 등의 별화(別畵)를 그리고 외부(外部) 공포대벽(公包帶壁)에도 불상(佛像)을 그렸는데 그 문양(文樣)과 채색(彩

色)숨씨가 비상(非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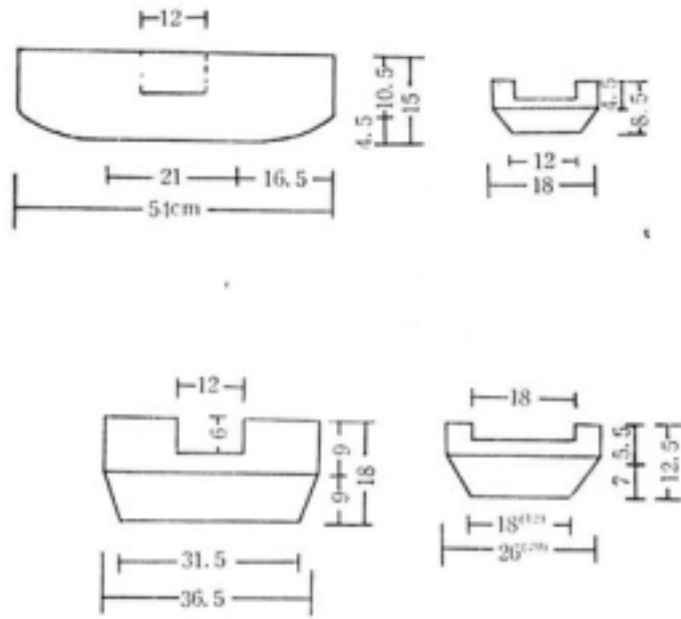


〔圖版 6〕 内部바닥

〔圖版 6〕 내부(內部)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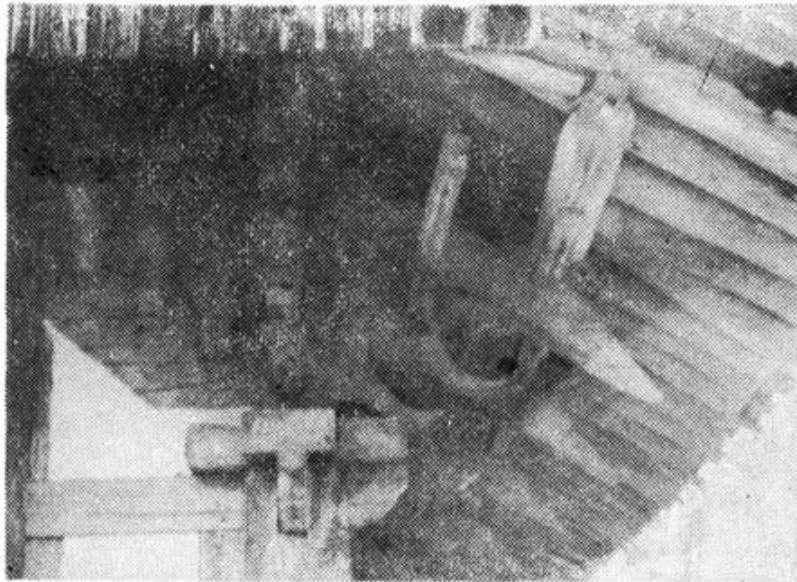
다음 건축구조(建築構造) 및 가구(架構)에 대(對)하여 고찰(考察)해 보면 다포계(多包系)의 맞배 집이기 때문에 창방(昌枋)은 전후(前後)로 돌려 측면(側面)에는 퇴(退)보와 같이 고주(高柱)에 연결되고 평방(平枋)은 측면(側面)에 포(包)가 짜이지 않아 전후면(前後面)만 돌리고, 측면(側面)에는 컷기등위의 처리를 위하여 약간만 물려준 단평방(短平枋) 형식(形式)을 취하고 있음이 마치 통도사(通度寺)의 약사전(藥師殿)이나 영산전(靈山殿)의 경우와 비슷하다. 포(包)의 짜임은 양(昂)을 제외(除外)하고 외이출(外二出) 내삼출목(內三出目)으로 되어 있고 두공(頭工)에서부터 산미(山彌)는 외부(外部)로 쇠서와 내부(內部) 연화초(蓮花草)를 각(刻)하였는데 쇠서의 끝은 약간 날카로우면서도 그 처집이 재(材)의 하단(下端)에서부터 약 15cm 처져 있어 장곡사하대웅전(長谷寺下大雄殿)의 것과 비슷하고 또 소실(燒失)된 청평사극락전(淸平寺極樂殿)의 쇠서와도 비슷하여 조선초기수법(朝鮮初期手法)이라 볼 수 있다. 첨차(첨遮)의 모양은 양(兩)끝이 직절(直切)되고 공안(공眼)이 없는 것은 장곡사하대웅전(長谷寺下大雄殿)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양단(兩端)밑에 권살방법(卷殺方法)은 중국(中國)의 영조법식(營造法式)이나 공부공정주법(工部工程做法)에 나타난 비례(比例)와는 맞지 않는다.

공포(공包)는 제이제공(第二諸공)까지는 일반(一般) 다포계(多包系)의 건물(建物)과 같고 출목(出目)의 간격(間隔)은 31cm로서 사용척(使用尺) 1척(尺)으로 한 것 같다.



〔圖版 7〕 처마받침목

〔圖版 7〕 처마받침두(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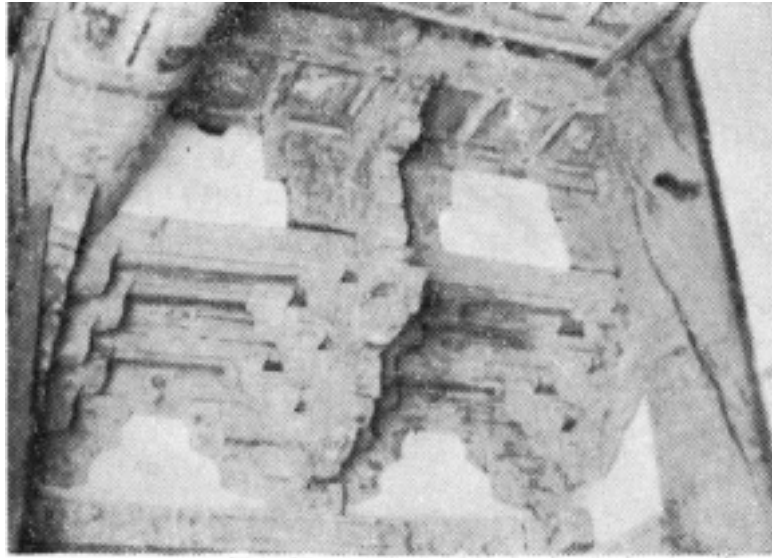


〔圖版 8〕 後面包部

圖版 8〕 후면포부(後面包部)

또 제삼제공(第三諸공)은 내부(內部)로는 그 밑에 제공(諸공)과 맞추어 초각(草刻)을 하여 대량(大樑)밑에서는 양봉(樑奉)을 이루고 간포(間包)에서는 천정측면(天井側面)에 당골벽을 받게 되어 있다. 단 후측(後側) 양(兩)쪽 우주(隅柱) 내부(內部)는 산미(山彌)끝을 그냥 사절(斜切)하여 간결화시켰다.

외부(外部)로는 제이(第二) 출목(出目) 소(小)침차 위 소루(小累)에서부터 쇄서로 빠져나올 부분(部分)이 상부(上部)에서 밑으로 사절(斜切)되어 이 위에 앙(昂)을 받고 있는데 이 앙(昂)은 외이출목(外二出目) 장설(長舌)를 교차(交叉)하여 건물(建物) 측면(側面)에서는 고주(高柱)의 상단(上端)을 물려서 파고 들어가 그 끝은 종(宗)보를 양봉(樑奉)처럼 약간 받쳐 장설(長舌)와 직교(直交)하고 있고 그 위에 고주(高柱)의 주두(柱頭)를 얹어 놓고 이 위에는 또 장설(長舌)와 중(中)도리를 얹어 이곳 바로 상부(上部)에 두텁게 실린 지붕 하중(荷重)으로 하여금 이 하양(下昂)의 내단(內端)을 안전(安全)하게 늘려준 구조(構造)를 이루고 있다. 또 내부(內部) 간포(間包) 부분(部分)에서는 제삼출목(第三出目) 소침차(小침遮) 위에서 천장 단(段)의 당골벽(壁)을 받치고 있는데 이 당골벽의 상하부(上下部) 장설(長舌)사이를 짧은 침목으로 짜아 평면(平面)으로 보아 십자형(十字形)으로 짜아 하양(下昂)을 받치고 하양(下昂) 밑에서는 하양(下昂)의 경사에 맞추어 이들을 산미방향(山彌方向)으로 사절(斜切)해 놓았으며 하양(下昂)의 내단(內端)에서는 고주(高柱) 주두(柱料) 밑에서 가로지른 장설(長舌)와 그 위에 중(中)도리가 얹혀지게 되어 있고 또 대량(大樑) 위에서는 이 부분(部分)에 동자주(童子柱)의 기능(機能)을 갖는 침차를 올려놓고 이 위에 주두(柱料)와 장설(長舌)를 짜아 간포(間包)의 경우와 같이 하양(下昂)을 걸었으며 그 위에 종(宗)보로 덮었고 대량(大樑)과 종(宗)보사이에는 통판(板)으로 막았다. 이렇게 하여 지렛대의 기능(機能)을 하는 하양(下昂)의 한끝은 안전(安全)하게 늘려주고 다른 한끝의 외부(外部)쪽으로는 외이출목(外二出目) 밖으로 수평(水平)거리 67.5cm(사용척(使用尺) 2.1척(尺))되게 빼어내어 하양(下昂) 위에 구형소루(矩形小累)를 놓아 이 위에 침차없이 장설(長舌)겸 처마도리로 구형단면(矩形斷面)을 한 장재(長材)를 보내고 이 위에 연목(椽木)을 얹어 처마를 내 밀었는데 처마는 정면(正面)쪽은 부연(浮椽)을 두어 겹처마로 하여 수평(水平)거리 약 3m 까지 길게 내밀고 후측은 홀처마로 수평(水平)거리 약 2.5m까지 내밀었다. 그런데 이 전면(前面)측에는 길게 내온 처마에 견디도록 처마도리와 주심(柱心)도리 사이에 하양(下昂)위에 같은 방향(方向)으로 부재(部材)를 하나 덧대어 처마도리 외부(外部)로는 용두(龍頭)를 조각(彫刻)하고 그 밑에 하양(下昂)의 뿔목은 용(龍)의 다리와 신부(身部)를 조각(彫刻)하여 채색(彩色)하였다. 건물(建物) 후편(後便)에는 위와 같이 보충(補充) 상양재(上昂材)가 없이 그대로 내밀어 처마도리밑에 따로 벼개목을 대고 하양(下昂)은 도리에서 약간 더 나와 상면(上面)에서부터 사절(斜切)하여 끝을 뾰족히 하여 마치 중국(中國)의 하양(下昂)부리와 흡사한 형태(形態)를 하였다.



[圖版 9] 內部包部

[圖版 9] 내부포부(內部包部)

건물(建物) 전체적(全體的)으로 볼 때 대량(大樑)과 종량(宗樑)이 있는 오량(五梁)집으로 생각(生覺)되나 하양상부(下昂上部)의 처마도리를 가산(加算)한다면 칠량(七樑)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보와 연관(聯關)하여 따진다면 오량(五梁)집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겠다.

대량(大樑)의 단면(斷面)은 상면(上面)이 수평(水平)을 이루고 하부(下部)가 차츰 좁아지는 주발의 입면(立面)같은 형태(形態)를 하여 조선초(朝鮮初), 중기(中期)의 다른 건물의 것과 비유(比喩)되고 도리에 있어 마루도리와 주심(柱心)도리는 굴도리이고 중(中)도리는 단면(斷面)이 사각(四角)에다 모를 접은 납도리와 굴도리의 혼용형태(混用形態)라 볼 수 있으며 전면(前面) 처마도리는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진 납도리이고 후면 처마도리는 굴도리로 놓았다.

종(宗)마루를 받치는 대공은 처음부터 내부(內部) 반자를 의식(意識)하였음인지 벽개목과 같은 각재(角材)를 4~5단(段) 놓아 첨차를 하나 두고 장설(長舌)와 마루도리를 받치고 있는 간단한 구조(構造)로 했다.

양측(兩側) 박공쪽에는 평주상부(平柱上部) 주심(柱心)도리 있는 높이에서부터 풍판(風板)을 달아 밑을 수평(水平)으로 잘라내었고 도리의 뿔목은 비슷한 길이로 내어 잘랐으나 각 출목(出目)의 장설(長舌)는 길고 짧아 불규칙하게 내밀어 꿩었고 특히 주심장설(柱心長舌)은 도리까지 5단(段)이 겹쳐졌으므로 측면(박공쪽)으로 보아 이 투박하고 불안한 마구리를 감추기 위하여 첨차와 같이 상향(上向)으로 차츰 길게 뽑아 끝에는 소루(小累)를 얹어 놓았다.

주두(柱料)와 소루(小累)는 일반적(一般的)인 다포계(多包系)의 건물과 비슷하나 그 크기와 춤의 비(比)가 약 2 : 1인 아주 낮으막한 형태(形態)를 하고 특히 전면(前面) 간포(間包)의 받침 주두(柱料)는 외부(外部)로 연화조각(蓮花彫刻)이 되어 있어 마치 부안개암사대웅전(扶安開岩寺大雄殿)의 것과 비슷하나 개암사(開岩寺)에서는 주두(柱料)의 조각(彫刻)이 개개별(個個別)로 달라지는데 비하여 여기서는 전면간포(前面間包)는 다같이 되어 있음이 다르다.

또 지붕위에 기와는 막사와(幕斯瓦)가 남아있지 않아 기록(記錄)이나 문양(文樣)의 자료(資料)를 얻을 수 없었고 용마루 적새 5단(段) 및 내림마루 적새 3단(段)으로 이어져 보수를 하지 못해 기와골이 흐트러져 누수가 심하여 비닐종이로 덮어 놓았다.

이상(以上)으로 본(本) 건물구조(建物構造) 형식(形式)에 대(對)하여 대략(大略)의 기술(記述)을 하여 소개(紹介)하였다.

다음으로는 특(特)히 하양(下昂)에 대(對)한 학술적(學術的) 고찰(考察)을 하면서 이 건물(建物)의 포(包)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양(下昂)은 포구조(包構造)의 한 부분(部分)이므로 하양(下昂)에 대(對)하여 논(論)하기전 포(包)에 대(對)한 개념(概念)을 생각해 보겠다.

포(包)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中國), 일본(日本) 등지(等地)에서 목조건축(木造建築)에 쓰여지는 조립부분(組立部分)으로서 일반적(一般的)으로 기둥위에서 기둥과 보, 기둥과 도리등(等)의 수직재(垂直材)와 횡가재(橫架材)가 맞추어질 때 장식적(裝飾的) 혹은(或)은 구조적(構造的)으로 짜여져서 여러 부재(部材)가 결속(結束)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건물내부(建物內部)의 낮은 도리와 높은 도리 사이, 또 동자주(童子柱)와 중(宗)보와 중(中)도리의 맞춤에도 사용(使用)될 수 있고 대공(臺工)과 중도리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 또 외부(外部)에는 평방(平枋)이나 창방(昌枋)과 처마도리 사이내(內), 외목도리(外目道里)와 주심(柱心)도리 사이에서도 짜여지는 것이 보통이고 주두(柱料)위에 놓이는 것과 주두(柱料)밑에 놓이는 것 등 실로 다양(多樣)하게 조성(組成)되는 기둥 상부(上部)에서부터 지붕 밑부분(部分)에 놓여지는 조립부분(組立部分)이다. 이것은 일반적(一般的)으로 권위건축(權威建築)에 구성(構成)되어 지붕의 하중(荷重)을 분산(分散) 혹은(或)은 집중(集中)시켜 구조적(構造的)으로 안전(安全)한 완충적(緩衝的) 기능(機能)을 하기도 하고 내부공간(內部空間)과 외부(外部)처마의 내뒀을 확장(擴張)시키고 건물(建物)을 높여 웅장(雄壯)한 멋을 낼뿐 아니라 그 구성(構成)과 공작(工作)이 섬세하여 건축의장상(建築意裝上)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한다.¹⁾

이렇게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이기 때문에 이 부분(部分)에서 많은 수법(手法)과 양식(樣式)을 나타내고 또 중국(中國)의 영조법식(營造法式)과 같이 어떤 규범(規範)을 만들어 사용해오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포(包)의 구조(構造)와 그 양식(樣式)은 중국(中國)의 것을 영향(影響)받았으면서도 많은 차이점(差異點)이 있고 또 일본(日本)의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의미(意味)에서 하양(下昂)의 구조(構造)도 중국(中國)의 것을 많이 영향(影響)받았지만 세부적(細部的)으로 그것과는 많이 다르고 같은 방법(方法)으로 영향(影響)받은 일본(日本)의 하양양식(下昂樣式)과도 많은 차이(差異)가 있으리라고 믿어 왔다.

역사적(歷史的)으로 볼 때 하양(下昂)은 인류(人類)가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후기(後期) 혹은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부터 수혈주거(竪穴住居)에서 처마의 서까래를 땅에서 떼어 놓기 시작했을 때 비의 드리침을 막기 위하여 처마를 길게 내어줄 필요(必要)를 충족(充足)시켜 주기 위하여 서까래 끝에 바로 덧댐목을 연장(延長)시키거나(이것은 부연(浮椽)의 기능(機能)임) 건물내부(建物內部)에서부터 빠져 나오는 구조재(構造材)(사량(斜樑))를 서까래에 연결하여 받쳐지게 하는 방법(方法)에서 나온 지금의 평신포(平身包) 보다는 아주 원초적(原初的)인 구조(構造)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양(下昂)은 중국(中國), 한(漢)의 명기(明器)에서도 나타나고 당대(唐代)의 유구(遺構)인 산서오대산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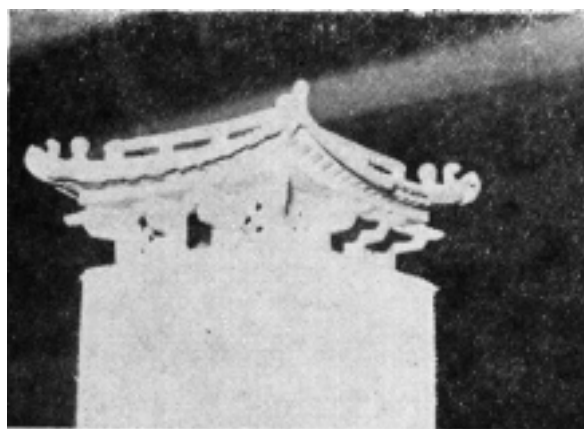
광사정전(山西五臺山佛光寺正殿)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다. 요(遼), 금(金), 송(宋), 원(元), 청(淸)에 거쳐 계속 사용해 졌음이 실재 유구로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日本)에서도 법룡사금당(法隆寺金堂), 당초제사금당(唐招提寺金堂), 흥복사탑(興福寺塔) 등에도 나타나서 고대(古代)부터 근세(近世)에 이르기까지 하양(下昂)(소위(所謂) 미추(尾 추))을 써왔다.



〔圖版 10〕 漢明器에 나타난 下昂

〔圖版 10〕 한명기(漢明器)에 나타난 하양(下昂)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존건물(實存建物)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형(家形)의 유물(遺物)로 현재(現在) 부여박물관(夫餘博物館)에 소장된 백제(百濟) 청동제소탑(靑銅製小塔)이나 서울의 전성우씨(全晟雨氏) 소장인 신라(新羅) 청동불감(靑銅佛龕)에 나타난 포(包)의 모양을 관찰(觀察)하여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하양(下昂)을 써왔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고려시대(高麗時代) 유물(遺物)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 있는 청동다층소탑(靑銅多層小塔)에 보면 하양(下昂) 혹은 일반적(一般的)인 쇠서같은 부분(部分)을 볼 수 있어 이 이후(以後)에 사용여부(使用如否)는 알길이 없었다.



〔圖版 11〕 百濟 靑銅小塔

〔圖版 11〕 백제(百濟) 청동소탑(靑銅小塔)



〔圖版 12〕 新羅 青銅佛龕

〔圖版 12〕 신라(新羅) 청동불감(靑銅佛龕)

여기서 양(昂)에 대(對)하여 좀더 자세히 논(論)해 보자면 양(昂)은 중국(中國)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는 비양(飛昂)이라 하여 내부(內部)에서는 중(中)도리가 량(樑)이 있는데 까지 깊이 묻혀 주심포(柱心包) 벽을 뚫고 외부(外部)로 뻗어나온 하양(下昂)과 주심(柱心)벽 내부측(內部側)에서 경사(傾斜)져 올려 이 하양(下昂)을 받들고 있거나 이에 준(準)하는 역할을 하는 보충부재(補充部材)로서의 상양(上昂)을 합(合)하여 총칭(總稱)한 것이다. 중국(中國) 문물지(文物誌)의 기록(記錄)을 보면

「昂是一根 直長的木材，通過斗공의中心斜垂向下，出於華공之上，一層昂叫的單下昂，兩層的叫雙下昂，三層的叫三下昂，타의前面桃着屋椽後面桃着樑標…… 在前端的叫昂嘴，在後端的叫昂尾……除了下昂之外，還有一種上昂，從下往上挑起……(양시일근 직장적목재, 통과두공적중심사수향하, 출어화공지상, 일층양규적단하양, 양층적규쌍하양, 삼층적규삼하양, 타적전면도착옥침후면도착량표…… 재전단적규양취, 재후단적규양미……제료하양지외, 환유일중상양, 중하왕상도기……)」²⁾

라 하여 우리말로 포(包)살미 위에 경사(傾斜)져 놓이어 그 수에 따라 단하양(單下昂), 쌍하양(雙下昂), 삼하양(三下昂) 등이 있고 부재(部材)의 전면(前面)은 외목(外目)도리 밑을 바치고 양미(昂尾)는 보나 도리밑을 받들고 있으며 하양외(下昂外) 상양(上昂)도 있다는 기술(記述)이다. 또 동지(同誌)에서

「出跳卽是由柱頭爐斗向前後各伸出一跳華公(翹頭)或昂的意思宋式出一跳叫四鋪作(淸式叫三進), 由此從四鋪作, 五鋪作……類推可遂跳至八鋪作(淸式從三進, 五進, 七進, 可遂跳至十一進)(출도즉시유주두노두향전후각신출일도화공(교두)혹양적의사송식출일도규사포작(청식규삼진), 유차중사포작, 오포작……유추가수도지팔포작(청식중삼진, 오진, 칠진, 가수도지십일진)」

라 하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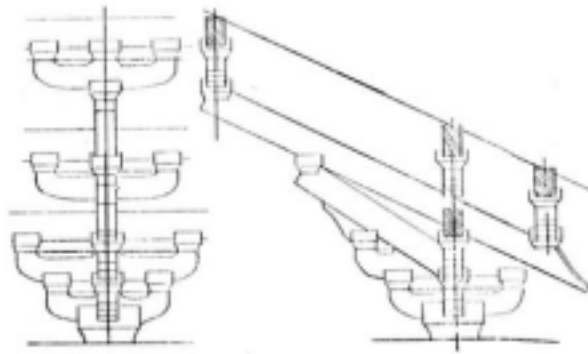
「昂和公的使用, 可以有靈活的變化, 如單抄(진)雙下昂, 雙抄單下昂, 雙抄雙下昂(重翹重昂)……雙抄三下昂等等(양화공적사용, 가이유령활적변화, 如單抄(진)쌍하양, 쌍초단하양, 쌍초쌍하양(중교중양)……쌍초삼하양등등)

이라 하여 포작(包作)을 세우는 방법(方法)을 설명했는데 영조법식(營造法式)에 나타난 포작수(包作數)를 칭(稱)하는 것과 실제 포작(包作)의 도면(圖面)을 살펴보면 주두(柱料)에서부터 요두(要料)까지 출도(出跳)한 모든 부재(部材)의 수(數)를 세어보니 맞게 되어 있다.

또 상기(上記)한 원문중(原文中) 초(抄)라 함은 양(昂)밑에 교두(翹頭)로 된 산미(山彌)를 의미(意味)하지만 화엄사극락전(華嚴寺極樂殿)의 경우 쇠서산미(山彌)를 초(抄)로 간주하여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건물(建物)의 포(包)를 중국식(中國式)으로 굳이 헤아린다면 이초단하양육포작(二抄單下昂六包作)으로 불리울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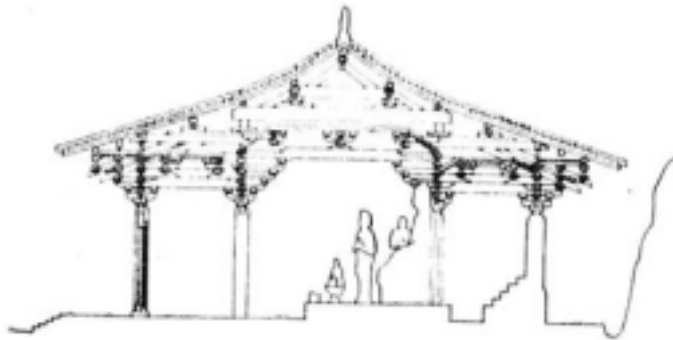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 목구조(木構造)가 중국(中國)것과 상이(相異)한 점이 많아 이러한 칭명(稱名)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굳이 칭명(稱名)하고자 하면 다포계(多包系) 외오포(外五包) 내칠포(內七包) 단하양구조(單下昂構造) 혹은 외이출(外二出) 내삼출(內三出) 단하양구조(單下昂構造)라 부를 수 있겠으나 건물(建物) 전면부(前面部)와 같이 하양상(下昂上)에 보조(補助)부재(部材)가 있는 것을 어떻게 칭명(稱名)해야 옳을 것인가는 좀더 연구(研究)할 문제(問題)이다.

이상(以上)의 명칭(名稱)과 의의(意義)는 약술(略述)하고 화엄사극락전(華嚴寺極樂殿)의 하양(下昂)구조(構造)와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하양(下昂)과 비교(比較)하면,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하양(下昂)과 같은 점은 하양(下昂)의 양취부분(昂嘴部分)은 처마도리를 받들고 양미부분(昂尾部分)은 내부(內部)의 보나 중(中)도리밑을 받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기술(記述)한 바와 같이 양(昂)이 갖는 지렛대의 기능상(機能上) 같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中國)의 양(昂)은 초기적(初期的) 수법(手法)에서는 한(漢)의 명기(明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외벽중간(外壁中間)을 뚫고 나오며 당대(唐代)의 불광사정전(佛光寺正殿) 및 산서(山西) 진국사만불전(鎮國寺萬佛殿)에서는 주심포(柱心包)에만 하양(下昂)을 두어 양미(昂尾)를 보밑에 결구(結構)하고 하양(下昂)은 포(包)의 중간(中間)을 뚫어 침차(침遮)를 교차(交叉)하여 나왔고, 간포(間包)에는 평신포(平身包)로 처리했다.



〔圖版 13〕 保聖寺 大殿昂

〔圖版 13〕 보성사(保聖寺) 대전양(大殿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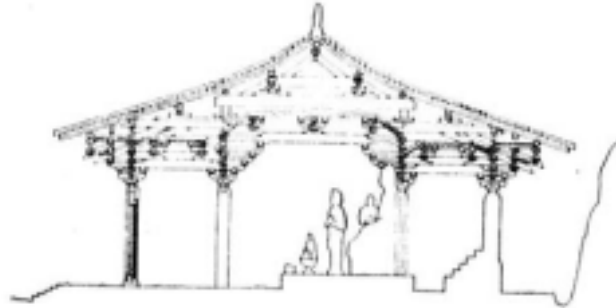


〔圖版 14〕 佛光寺大殿

〔圖版 14〕 불광사대전(佛光寺大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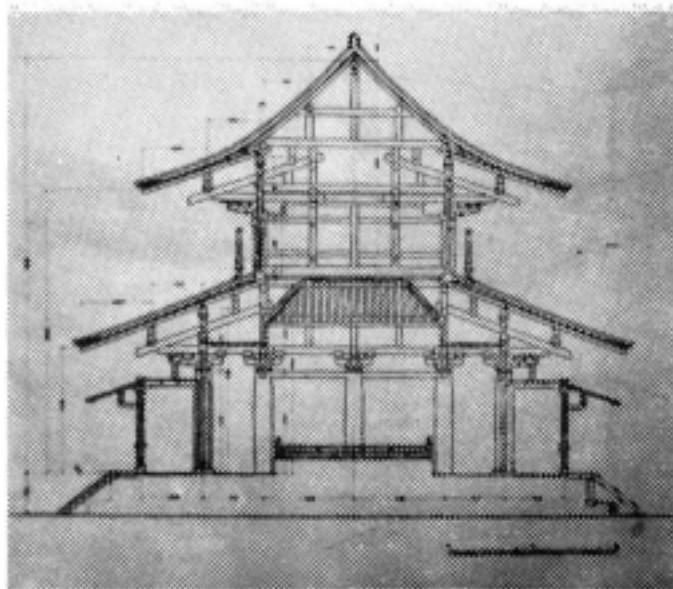
송대(宋代)에는 양미(昂尾)가 중(中)도리를 받치고(보성사대전(保聖寺大殿)) 하양(下昂)의 보조(補助)로서 상양(上昂)이 발달(發達)하다가 이것이 청대(靑代)에 와서는 하양(下昂)이 내부(內部)로 중(中)도리까지 겹겹이 중첩되어 놓이고 외부(外部)로는 하양(下昂)의 구실을 못하고 평신포(平身包)로 변(變)하는 퇴화(退化)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日本)의 경우는 또 다르다. 법룡사금당(法隆寺金堂)의 예(例)를 보면 하양(下昂)(미종(尾種))의 전단(前端)은 중국(中國)과는 달리 양취부(昂嘴部)'가 없이 직절(直切)하여 잘랐고 이 위에 소루(小累)와 첨차를 놓고 처마도리를 받치고 있기는 하나 양미부분(昂尾部分)은 보와 중(中)도리 밑에 별개의 가구(架構)를 짜아튼 창방(唱榜)등에 결구(結構)되어 지붕의 하중(荷重)은 여러 부재(部材)를 통하여 이 양미(昂尾) 부분(部分)에 걸리도록 되어 있다. 또 일본(日本) 당초제사금당(唐招提寺金堂)의 경우는 이 하양(下昂)은 마치 트러스 구조(構造)의 일부(一部)를 나타내는 것 같아 양(昂)의 포배(包配)는 연목(椽木)과는 다르게 하여 삼각구조(三角構造)를 하고 연목(椽木)위에는 큰 부재(部材)의 덧서까래를 걸어 처마의 내뒀을 심대화(甚大化)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日本)에서는 소부재(小部材)를 여러번 결구(結構)한 지붕틀 재(材)의 하나로서 하양(下昂)을 사용(使

用)하고 있어 그 외형(外形)에 있어 무미(無味)한 맛을 준다.



〔圖版 14〕 佛光寺大殿

[圖版 14] 일본(日本) 법룡사금당(法隆寺金堂) 단면도(斷面圖)



〔圖版 15〕 日本 法隆寺金堂 斷面圖

(圖版15)

이상(以上)에서 비교(比較) 기술(記述)한 것으로 보면 화엄사극락전(華嚴寺極樂殿)은 중국(中國)의 것과 같이 하양(下昂)이 포중간(包中間)을 꿰뚫어 점차등을 직교(直交)하는 복잡(複雜)함과 불안성(不安性)을 피하여 첨차 위에서 장설(長舌)을 직교(直交)하였고 일본(日本)의 것과 같이 무미(無味)한 구조(構造)로서의 외형(外形)을 탈피(脫避)하여 외모(外貌)도 의장적(意匠的)이면서도 구조적(構造的)으로 충실(充實)하고 안정(安定)된 멋을 나타내어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特有)한 건축술(建築術)에 의한 것이라 자부(自負)하고 싶다.

이 건물(建物)은 양식(樣式)이나 구조형식(構造形式)으로 보아 조선초기(朝鮮初期)를 더

위의 내용(內容)을 보면 고려말(高麗末) 조선초(朝鮮初)(1376~1444)년에 생존(生存)했던 무과출신(武科出身)인 효백(孝伯) 성달생(成達生)이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있을 때(1425년 세종(世宗)7년)에 이 사찰(寺刹)을 중창(重創)하여 개채(改彩)하고 확장(擴張)하여 증축(增築)할 것을 기도하여 기유년(己酉年)(1429년)에 마친 것으로 기록(記錄)되어 있고 본래(本來)의 사찰(寺刹)은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창설(創設)되었다 하고 또 "이 절의 동(東)쪽 고개에는 원효대(元曉臺)가 있었고 남(南)쪽 고개에는 의상암(義相庵)이 있다" 하여 신라시대(新羅時代) 원효(元曉)와 의상(義相)의 행적(行蹟)을 나타내고 있다. 과연 이 사찰(寺刹)에 들어서면 길가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토기편(土器片)부터 고려(高麗),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자기편(磁器片)이 즐비하게 깔려있어 고래(古來)로부터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중창기(重創記)의 입비연대(立碑年代)가 융경육년(隆慶六年)(1572년 목종(穆宗) 6년)으로 나타나 조선초(朝鮮初)에 중창(重創)했음이 명확(明確)하다. 다만 불전명(佛殿名)을 판독(判讀)할 수 없어 아쉬웁다.

이상(以上) 이 사찰(寺刹)에 대(對)한 기록(記錄)을 설명했고 끝으로 이 사찰(寺刹)에 간직하던 동산유물(動産遺物)들을 상기(上記) 이강오, 정구복 두 교수가 조사(調査)한 목록(目錄)을 통(通)해 소개(紹介)하고 본사찰(本寺刹) 극락전(極樂殿)의 건축구조형식(建築構造形式)의 중요성(重要性)을 감안하여 이 허물어져 가는 우리나라 보물(寶物)을 하루 속히 지정(指定)하여 보수조치(補修措置)해 줄 것을 관계인(人)에게 간곡히 부탁(付託)하며 글을 맺는다.

화엄사내(華嚴寺內) 동산유물(動産遺物) 목록(目錄)

1. 동종(銅鐘)(지방문화재(文化財) 제40호) 직경(直徑) 70cm고(高) 107cm
2.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地藏보살상(地藏菩薩像), 정화(幀畫), 괘불(掛佛), 경판(經板), 부도3기(基)
3. 아미타불(阿彌陀佛), 후불정화(後佛幀畫)(319cm296cm)
 현왕정화(現王幀畫)(동치(同治) 10年, 1871작(作) 110cm84.5cm)
 신상정화(神像幀畫)(함풍(咸豐) 8年, 1858작(作) 103cm156cm)
 산건질구재신상정화(山巾帙具在神象幀畫)(함풍(咸豐) 8年, 1858작(作), 118cm122cm)
 약사정화(藥師幀畫)(도광(道光) 15年, 1835작(作) 9572cm)
 地藏후불정화(地藏後佛幀畫)(도광(道光) 10年 1830작(作) 170cm179cm)
 십왕정화(十王幀畫)(청파대화상(靑坡大和尚), 허주대화상(虛舟大和尚), 월하당대선사(月河堂大禪師), 인파대화상(仁波大和尚), 낭월선사(朗月禪師), 악암선사(樂岩禪師), 보경선사(寶鏡禪師), 운월선사(雲月禪師), 고경선사(古鏡禪師), 금파선사(金波禪師)(104cm76cm)
4. 경판(經板)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행(行)) 성화(成火) 5年, 효녕대군(孝寧大君)
 화엄경판(華嚴經版), 다라니경(陀羅尼經)
 무의집(無意集)(자효(子秀)스님 1664~1737), 무의실중어록(無意室中語錄)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만역(萬曆) 46年 1618)

계초심확인문(啓初心確認文), 발심문(發心文), 자경문(自警文), 선교대변(禪教對辯),

수생경(壽生經), 반야바라심경(般若波羅密心經), 심경언해(心經諺解)

정관집(貞觀集)(숭정기원(崇禎紀元) 신사(辛巳) 1641 안심사개간(安心寺開刊))

5. 현판(懸板)

혜정사법당산(慧定寺法幢山)(익종(翼宗) 어필(御筆) 120cm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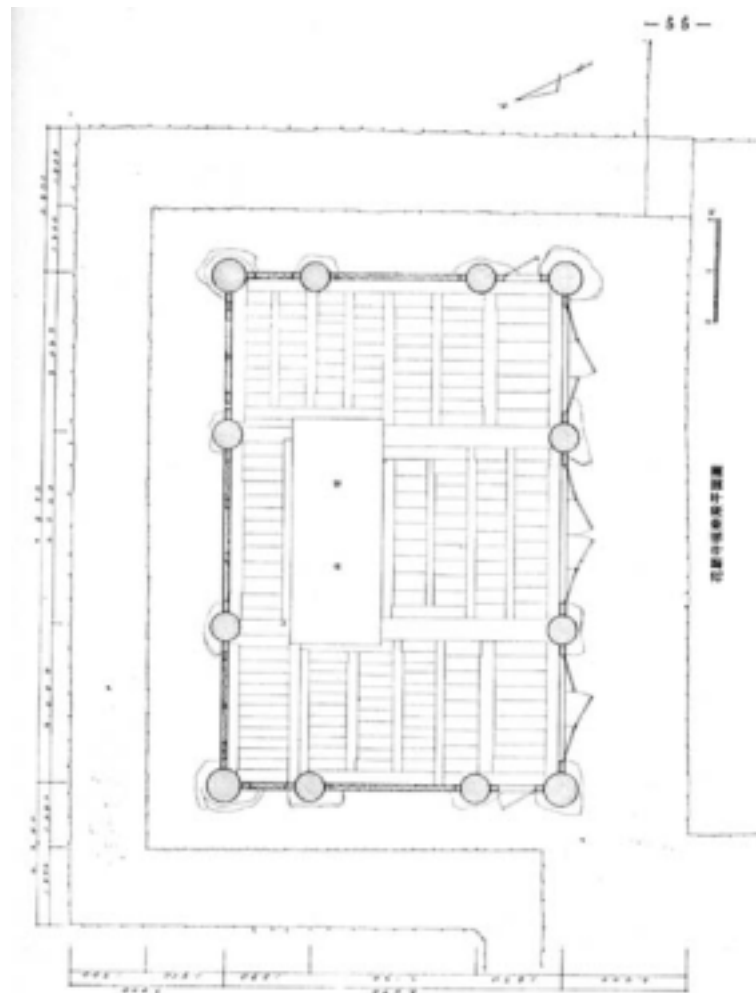
운궁축(雲宮祝) 흥선대원위합하(興宣大院位閣下) 경진생(庚辰生)

부대부인민씨(府大夫人閔氏) 무인생(戊寅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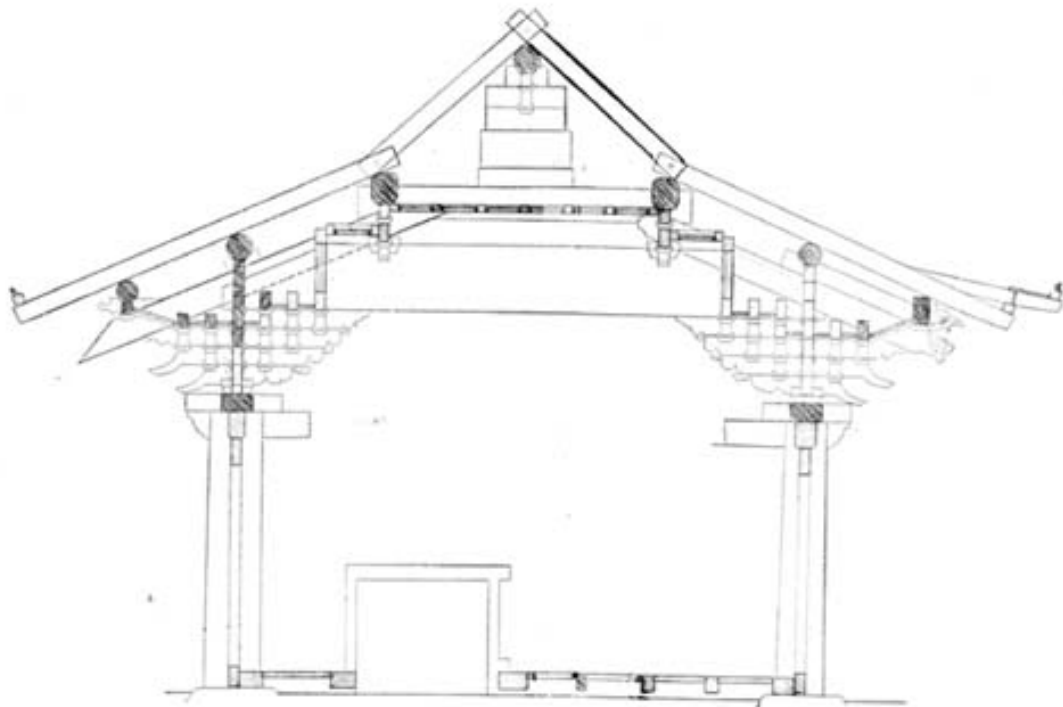
성상즉조지십년(聖上卽祚之十年) 계유(癸酉)(1873, 30cm60cm)

삼성각(參聖閣)(64cm26.5cm)

일주문(一柱門)(45cm30cm)



화엄사극락전평면도(華嚴寺極樂殿平面圖)



花嚴寺極樂殿架構造圖

화엄사극락전가구조도(華嚴寺極樂殿架構造圖)

參 考 文 獻

- 1) 筆者拙著, 碩士學位論文
韓國木造建築에 나타난 包에 관한 研究
- 2) 羅哲文 斗공, 文物參考資料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0
竹島卓一, 營造法式の研究
梁思成, 建築設計參考圖集
金東賢, 韓國古建築斷章(下)